

일개 대학의 선행 현장수업의 필요성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이재홍 · 박은미 · 김상수^{1†} · 권원안¹ · 김한수² · 정태은³ · 최한성⁴ · 김인규⁵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통합교육센터, ¹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²대구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³대구보건대학교, ⁴강병원 물리치료실, ⁵대구보건대학교병원

A Stud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Needs of Prior Field Learning in a College

Jae-Hong Lee · Eun-Mi Park · Sang-Soo Kim¹ · Won-An Kwon¹ · Han-Soo Kim² · Tae-Eun Jeong³ · Han-Sung Choi⁴ · In-Gyu Kim⁵

Education Center of Integrated Healthcare Services, Daegu Health College, ¹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²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³Daegu Health College, ⁴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ang's Hospital, ⁵Daegu Health College Hospital

Received: April 14, 2014 / Revised: June 20, 2014 / Accepted: June 25, 2014

© 2014 Journal of Kor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s of prior field learning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ield experience learning in a college.

Methods: This study was performed from May 1 to October 30, and students were given questionnaire. The research questionnai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the academic achievement after field experience learning, (2) to verify the needs of field experience learning. A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17.0 for window version.

Results: The results was as follows : First, satisfaction of field learning had scored good(47.2%) in lesson goal, good(51.8%) in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techniques, good(51.0%) in preparation of study and good(45.9%) in association. Second, curriculum of field learning had scored normal(35.5%) in prior education, good(47.4%) in composition, good(50.8%) in guidance and good(47.2%) in contents. Third, curriculum of field learning had scored good(44.6%) in duration, good(46.1%) in numbers, good(51.3%) in convenience and normal(38.1%) in means of transportation. Forth, needs of field learning had scored good(46.6%) in field learning of practicum, good(48.2%) in field learning of theory subject, 3-4 times(42.0%) in frequency of field learning and 2hours(57.3%) in a field learning hour.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llege student's thinking of field experience learning is positive. Field experience learning provided that college students have directly an opportunity of gaining valuable experience to feel the field.

Key Words: Achievement, Needs, Field experience learning, College.

†Corresponding Author : Sang-Soo Kim (kss1519@hanmail.net)

I. 서론

교과별 현장체험적용 수업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초등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에 집중되어 있다(Lee, 2003).

현장체험학습은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면서 행해지는 학습방법’이다(Jeon, 1995). 따라서 강의실에서 학습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 평가 등의 활동을 함께 하면서 교육과정이 풍부해지고 지식은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사고력을 높임과 동시에 연구심을 배양하도록 하여 학습의욕과 호기심을 지속시킬 수 있다(Lee, 2013).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의 관심의 유도과 직접 지각하는 방식을 통해 동원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사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의 높은 창의력과 인성 및 지식에 대한 논리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려면 이제 교실에서의 이론학습이 아닌 스스로 찾아내는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Lee, 2013).

현장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자연적, 사회적 현상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인의 행동 양식을 길러주고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감각적 인식이 가능하게 되므로 학습한 것을 실현할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적 과정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지식을 심화하고 확대하고 자연적인 호기심을 이용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지속시켜 준다(Oh, 1983; Lee, 2013).

현장수업은 학습자, 교사, 수업내용, 학습 환경들 간의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 지므로 수업 현장의 사회 문화적, 상황적 맥락을 기초로 하여 수업을 개선하고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Kang & Lee, 2011).

따라서 본 대학의 수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수

업을 이용하여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는 전문적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수업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현장수업의 적용에 따른 학업성취도, 현장수업의 교육과정, 현장수업의 여건 및 지원, 현장수업의 필요성에 미치는 정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D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208명과 물리치료과 178명의 재학생으로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보건통합교육 과정으로 학교기업병원에서 실시된 현장수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선행 현장수업 프로그램

현장수업 실시 방법은 연구절차를 거쳐 교재 및 매뉴얼을 완성하고 병원 멘토는 간호과, 물리치료과 부서별로 1명씩 구성되었다.

현장수업의 교육내용은 총 2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처음 1시간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교육이 실시되었고, 나머지 1시간은 해당분야에 대한 현장견학(체험)으로 이루어졌다.

3. 현장수업의 만족도와 필요성 조사

현장수업의 필요성과 만족도 조사는 대구보건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만족도 조사 설문지(2013)를 수정하여 현장수업에 대한 성취도는 만족도에 관한 항목 4개, 현장수업 교육과정에 관한 항목 4개, 현장수업 여건 및 지원에 관한 항목 4개로 구성되었고 현장수업의 필요성 정도는 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회수된 설문조사지에 대한 자료 분석은 SPSS 17.0 for window version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장수업 성취도에 관한 항목, 현장수업 교육과정에 관한 항목, 현장수업 여건 및 지원에 관한 항목, 현장수업의 필요성에 관한 항목에 대한 통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물리치료과와 간호학과의 현장수업 만족도와 필요성 정도

간호학과(208명)와 물리치료과(178명)의 비교에서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차이가 있었고 연령은 차이가 없었다.

현장수업 성취도에 관한 항목에서 현장수업의 목표달성여부는 차이가 없었고($p>.05$), 지식이나 기술습득에 도움, 교과학습이나 임상현장실습준비에 도움, 학과의 교과내용이 현장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항목은 물리치료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현장수업 교육과정에 관한 항목에서 사전교육, 교육구성은 물리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지도와 현장수업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수업 여건 및 지원에 관한 항목에서 현장수업처의 시설 및 환경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물리치료과가 높게 나타났고 수업기간, 수강인원, 이동 교통수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수업의 필요성에 관한 항목에서 실습과목과 이론과목은 물리치료과가 높게 나타났고 과목당 현장수업의 빈도와 시간에서는 간호학과가 높게 나타났다($p<.05$)(Table 1).

2. 현장수업의 성취도

현장수업에 대한 성취도는 만족도에 관한 항목 4개, 현장수업 교육과정에 관한 항목 4개, 현장수업 여건 및 지원에 관한 항목 4개로 구성되었다.

1) 현장수업의 만족도

현장수업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 첫째 항목인

Table 1. Comparison between NS and PT

Items	Group	Mean±SD	p
Sex	NS	1.78±0.42	.001*
	PT	1.62±0.49	
Years	NS	21.63±3.46	.926
	PT	21.59±4.86	
Lesson goal	NS	2.71±0.79	.299
	PT	2.79±0.75	
Acquisition	NS	2.89±0.78	.041*
	PT	3.04±0.69	
Preparation	NS	2.92±0.82	.000*
	PT	3.21±0.65	
Association	NS	2.74±0.81	.003*
	PT	2.98±0.73	
Prior education	NS	2.45±0.88	.001*
	PT	2.74±0.87	
Composition	NS	2.71±0.76	.008*
	PT	2.92±0.80	
Guidance	NS	3.08±0.72	.783
	PT	3.06±0.78	
Contents	NS	2.76±0.77	.093
	PT	2.89±0.78	
Duration	NS	2.59±0.86	.182
	PT	2.70±0.84	
Numbers	NS	2.75±0.80	.318
	PT	2.84±0.88	
Convenience	NS	3.08±0.66	.025*
	PT	3.24±0.74	
Means of transportation	NS	2.20±1.05	.252
	PT	2.32±0.98	
Needs (Practice)	NS	3.14±0.73	.001*
	PT	3.39±0.69	
Needs (Theory)	NS	2.83±0.79	.000*
	PT	3.13±0.75	
Frequency (Subject)	NS	1.69±0.89	.000*
	PT	2.01±0.90	
Time	NS	0.76±0.75	.000*
	PT	1.19±0.72	

† NS :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PT : Th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 $p<.05$

Table 2. The satisfaction of the field learning

Items	Options	Frequency	Percentage(%)
Lesson goal	very not good	3	0.8
	not good	8	2.1
	normal	132	34.2
	good	182	47.2
	very good	61	15.8
Acquisition	very not good	1	0.3
	not good	5	1.3
	normal	91	23.6
	good	200	51.8
	very good	89	23.1
Preparation	very not good	1	0.3
	not good	9	2.3
	normal	69	17.9
	good	197	51.0
	very good	110	28.5
Association	very not good	1	0.3
	not good	9	2.3
	normal	119	30.8
	good	177	45.9
	very good	80	20.7

“귀하는 이번에 실시한 현장수업으로 기대한 목표를 달성했나요?”에서는 ‘그렇다’가 182(47.2)명, ‘보통이다’ 132(34.2)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수업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 둘째 항목인 “현장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습득에 도움이 되었나요?”에서는 ‘매우 그렇다’ 89(23.1)명, ‘그렇다’ 200(51.8)명 그리고 ‘보통이다’가 91(23.6)명으로 나타났고 셋째 항목인 “현장수업이 향후 교과학습이나 임상현장실습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에서는 ‘매우 그렇다’ 110(28.5)명, ‘그렇다’ 197(51.0)명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수업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 넷째 항목인 “학과의 교과내용이 현장수업이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나요?”에서는 ‘그렇다’ 177(45.9)명, ‘보통이다’ 119(30.8)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3. The Curriculums of the field learning

Items	Options	Frequency	Percentage(%)
Prior education	very not good	3	0.8
	not good	32	8.3
	normal	151	39.1
	good	137	35.5
	very good	63	16.3
Composition	very not good	1	0.3
	not good	11	2.8
	normal	120	31.1
	good	183	47.4
	very good	71	18.4
Guidance	very not good	1	0.3
	not good	6	1.6
	normal	72	18.7
	good	196	50.8
	very good	111	28.8
Contents	very not good	2	0.5
	not good	9	2.3
	normal	120	31.1
	good	182	47.2
	very good	73	18.9

2) 현장수업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현장수업의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에서 첫째 항목인 “현장수업의 이해를 위해 사전교육은 충분히 받았습니까?”에서는 ‘그렇다’가 137(35.5)명, ‘보통이다’ 151(39.1)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수업의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에서 둘째 항목인 “현장수업 교육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까?”에서는 ‘그렇다’ 183(47.4)명 그리고 ‘보통이다’가 120(31.1)명으로 나타났고 셋째 항목인 “현장수업업체의 지도책임자가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지도하였습니까?”에서는 ‘매우 그렇다’ 111(28.8)명, ‘그렇다’ 196(50.8)명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수업의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에서 넷째 항목인 “현장수업기간 중의 업무량은 적절하였습니까?”에서는 ‘그렇다’ 182(47.2)명, ‘보통이다’ 120(31.1)명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4. The conditions and supports of the field learning

Items	Options	Frequency	Percentage(%)
Duration	very not good	2	0.5
	not good	31	8.0
	normal	124	32.1
	good	172	44.6
	very good	57	14.8
Numbers	very not good	4	1.0
	not good	17	4.4
	normal	111	28.8
	good	178	46.1
	very good	76	19.7
Convenience	very not good	1	0.3
	not good	1	0.3
	normal	60	15.5
	good	198	51.3
	very good	126	32.6
Means of transportation	very not good	15	3.9
	not good	70	18.1
	normal	147	38.1
	good	108	28.0
	very good	46	11.9

3) 현장수업의 여건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현장수업의 여건 및 지원에 관한 질문에서 첫째 항목인 “현장수업 기간은 충분하였습니까?”에서는 ‘그렇다’가 172(44.6%)명, ‘보통이다’ 124(32.1%)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수업의 여건 및 지원에 관한 질문에서 둘째 항목인 “현장수업의 수강인원은 적절히 배정되었습니까?”에서는 ‘그렇다’ 178(46.1%)명 그리고 ‘보통이다’가 111(28.8%)명으로 나타났고 셋째 항목인 “현장수업처의 시설 및 환경 등의 편의시설은 만족하나요?”에서는 ‘매우 그렇다’ 126(32.6%)명, ‘그렇다’ 198(51.3%)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수업의 여건 및 지원에 관한 질문에서 넷째 항목인 “현장수업처의 이동교통은 만족하나요?”에서는 ‘그렇다’ 108(28.0%)명, ‘보통이다’ 147(38.1%)명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5. The needs of the field learning

Items	Options	Frequency	Percentage(%)
Field learning of practicum	very not good	1	0.3
	not good	3	0.8
	normal	47	12.2
	good	180	46.6
	very good	155	40.2
Field learning of theory subject	very not good	3	0.8
	not good	5	1.3
	normal	96	24.9
	good	186	48.2
	very good	96	24.9
Frequency of field learning	very not good	7	1.8
	not good	146	37.8
	normal	162	42.0
	good	46	11.9
	very good	25	6.5
A field learning hour	very not good	100	25.9
	not good	221	57.3
	normal	52	13.5
	good	10	2.6
	very good	3	0.8

3. 현장수업의 필요성
 현장수업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 첫째 항목인 “실습과목은 학과교육과정에 현장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155(40.2%)명, ‘그렇다’ 180(46.6%)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수업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 둘째 항목인 “이론과목은 학과교육과정에 현장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그렇다’ 186(48.2%)명 그리고 ‘매우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동일하게 96(24.9%)명으로 나타났고 현장수업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 셋째 항목인 “학과교육과정에 현장수업이 과목당 몇 회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3-4회’ 162(42.0%)명, ‘1-2회’ 146(37.8%)명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현장수업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 넷째 항목인 “학과교육과정에 현장수업은 1회당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2시간’ 221(57.3%)

명, '1시간' 100(25.9%)명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고 찰

학생들은 현장에서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에서 하게 되는 일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04).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은 7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사회적·시대적 변화와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시간의 확대 등을 통해 학습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체험학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그 결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정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직접체험,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Kang, 2007).

Ko(2007)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군보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이 기본소생술 수행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아 시청각교육보다 체험학습이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본 대학의 현장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기대한 목표 달성여부에 관한 조사에서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수업이 향후 교과학습이나 임상현장실습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과 학과의 교과내용이 현장수업이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임상실무능력이 중요시되는 간호보건계열이 현장수업을 통해 학업의 만족도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수업의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과 구성, 업무량에 관한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현장수업업체의 지도책임자가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지도하였다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높은 비율로 조사되어 본 대학에서 실시한 현장수업의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과 구성이 잘 이루어졌음을 나타냈다.

현장수업 기간, 여건 및 지원, 수강인원, 현장수업처의 이동교통(수단)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현장수업처의 시설 및 환경 등의 편의시설 부분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높은 비율로 조사되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실습과목은 학과교육과정에 현장수업이 필요하다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40.2%, '그렇다' 46.6%로 조사되어 현장수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론과목도 현장수업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장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사회인의 행동 양식을 길러주고 감각적 인식이 가능하게 되므로 학습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기의 환경에 대한 통찰을 깊게 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사고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연구심을 고취와 자연적인 호기심을 이용함으로써 학교 작업에 대한 동기를 주고 개인적인 조사와 발견은 학습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또한 사상과 활동의 새로운 영역에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일으켜 수업 시간외의 학습이 개인적인 독서와 현장학습을 하도록 권장한다. 게다가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적 과정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지식을 심화하고 확대하고 자연적인 호기심을 이용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지속시켜 준다(Oh, 1983; Lee, 2013).

학과교육과정에 현장수업이 과목당 수업 빈도는 '3~4회'가 42.0%로 높게 조사되었고 현장 수업 1회당 적정시간은 2시간이 57.3%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보건계열의 실습과목은 충분한 현장수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지식이나 기술습득에 도움, 교과학습이나 임상현장실습준비에 도움, 학과의 교과내용이

현장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항목은 물리치료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D병원 재활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간호학과보다 물리치료과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장수업 교육과정에 관한 항목에서 사전교육, 교육구성이 물리치료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수업의 시행이 재활병원에서는 물리치료과 비중이 높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교수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학습의 경우 비용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학생 인솔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Song, 1999).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위주로 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혹은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현장체험 학습의 모델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Lee, 2013).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의 현장수업을 통해 나타난 교육의 성취도에 관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수업 만족도에 관한 항목 4개, 현장수업 교육과정에 관한 항목 4개, 현장수업 여건 및 지원에 관한 항목 4개를 알아보고 현장수업의 필요성 정도는 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지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현장수업의 만족도에 관한 네 가지 조사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둘째, 현장수업의 교육과정에 관한 네 가지 조사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셋째, 현장수업의 여건 및 지원에 관한 네 가지 조사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넷째, 수업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항목인 ‘실습과목은 학과교육과정에 현장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매우 그렇다’ 40.2%, ‘그렇다’ 46.6%로 조사되었고 현장수업이 과목당 ‘3-4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42.0%로 가장 높게 반영되었다. 학과교육과정에 현장수업은 1회당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2시간’이 가장 높은 비율(57.3%)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대학에서 실시한 현장수업은 대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임상현장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실행과 효율적인 현장수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Kang KE. A study of interest of science of learners through field learning : a survey in change on interest of before and after field learn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7.
- Kang JC, Lee SS. Design-based research (DBR) as field research method to improve instruction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011;23(2): 323-354.
- Ko JH. The Effect of the simulation-based training on the competence of basic life support of th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7.
- Kim JH.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reality of field trip for history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7.
- Kim SY, Kim JH, Ahn DH, et al. An investigation of factors which influence physical therapy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linical practice. *Physical Therapy Korea*. 2004;11(3):71-84.

Song CY.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education. Seoul. Hyunseul Publishing. 1999.

Oh YT.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Kyohakyongusa. 1983.

Lee JH. A study on cultivating the morality through the action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3.

Lee JY. The use of the field experience learning in a college

liberal art course: a case study of the field experience learning of reconsidering the awareness of unifi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3;7(5): 495-521.

Jeon HS. A geographical survey, seems to see as much as. A Book to open the tomorrow. 1995.